

사업구분 : 농경공동	Code 구분 : LS001	농업경영(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우수경영체 발굴 및 확산방안 연구	'05	농촌진흥청 김사균
강원지역 우수농업 경영체 발굴 및 확산 방안 연구	'05	강원도원 작물경영연구과 채영길
색인용어	우수경영체, 우수농업경영체, 경영기록, 선도농업인	

ABSTRACT

Object of this study is selected best farmhouse registered to RDA website. This investigation was based on data that examine at whole country 157 agricultural techniques center from March to October in 2005. Local agricultural techniques center employee visits 212 farmhouses and examined interview. The result is as following. Age of farmhouse is average 47.2 years old in which the oldest person is 65 years old and the smallest person 26 years old. Income analysis result by management formation group Individual farmhouse got income 408million won, kind of crop class earned 459 million won and agriculture corporation incomed 562.5million won yearly. Korea farmhouse average income has 29 million won during the 2004. City worker income has 37.4 million won in which 1.3 times more than farmhouse incom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o become best agricultural management First condition is Farmhouse income is more than that city worker income. Second condition is best agricultural management income must be more than 2 times more than that general farmhouse. TO satisfy preceding descriptions two essential factors that investigation farmhouse's 52% was filled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농촌은 고령화 이농화 등으로 농촌인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DDA·FTA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은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경지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산업화로 인하여 경지면적은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하다. 1994년 UR협정이후 우리 농촌은 10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촌 구조조정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농가소득은 1.3배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3.4배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1에서 1.3:1 로 30%이상 격차가 벌어져 갈수록 농촌의 교역조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여도 농가소득과 직

결되지 못하고 농촌구조 조정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토지부문에 있어서는 경지면적의 절반이상이 다수의 영세농가에서 평당 1,500원대의 논 농사와 식량작물에 묶여 있고, 노동공급시장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은 어느작목 어느계층을 상대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간 우리농정은 소수의 엘리트 농업인 보다는 다수의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대중농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결과 1차산업인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2,3차 산업과 달리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여기에 관한 어떤 계량적인 데이터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우수농업 경영체란 용어도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개념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처음 사업초기 개념정의를 내리기 위해 많은 연구진들이 모여 개념논의를 시도 하였으나 전부 제각각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토론으로 끝날 뿐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여, 우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균 2농가씩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농가를 추천받아 도에서 1차, 중앙에서 2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농업 경영체에 대한 사례분석 자료를 토대로 개념정의를 이끌어 내는 귀납법적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조사사업은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57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초 조사한 자료를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서 1,2 차 검증을 거쳐 최종 212농가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지 센터에서 농가방문을 하여 면접청취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대상농가는 각 시군을 대표하는 최상위 농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우수한 농가라고 생각되는 농가를 무작위 추천방식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대상 표본농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별 조사농가

(단위: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4	22	22	24	24	17	24	42	3	212

3. 결과 및 고찰

가. 농가개요

(1) 경영주 인적사항

경영주의 성비는 남자 201명, 여자 11명으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평균연령은 47.2세, 최고령자 65세, 최연소자 26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가 109호, 50대 54호순으로 분석되어 40~50대 계층이 76%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농가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0년 농업총조사시 연령대별 경영주 구간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본 우수사례 조사농가의 60대 이상은 3.4%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대는 40대 53.2%, 30대 16.1%를 차지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50대가 우수농업 경영체를 대표하는 값으로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령대별 분포

(단위 : 호)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조사농가	205 (100)	2 (0.9)	33 (16.1)	109 (53.2)	54 (26.4)	7 (3.4)
전국농가	1,383,468 (100)	7,270 (0.5)	84,246 (6.1)	237,737 (17.2)	348,067 (25.2)	706,148 (51.0)

주) 조사농가 : 7농가 무응답, 전국농가 : 2000 농업총조사, 농림부

조사농가 대부분이 복합영농을 겸업하는 농가로서 주력작목에 대한 경영주의 재배경력을 분석한 결과 평균 15.3년, 연평균 교육이수 일수는 16.9일, 학력수준은 고졸로 분석되었다. 과학영농을 구현하는 기본사항으로 경영기록장 기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복식부기 형태는 기록 못하고 간이 장부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조사농가의 11%인 23농가에서는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농가의 68%인 145호 농가만이 매일 경영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경영기록¹⁾ 형태

일별기록	주별기록	월별기록	미기록
145호	36	8	23

경영체 유형별 분류는 크게 개인이 혼자 경영하는 개별경영체와 여러농가가 모여 독립된

1) 경영기록 : 완전한 복식부기 기장농가는 없고, 대부분 단식부기(간이기록)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법인경영체, 중간적 형태로 운영되는 작목반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조사농가의 경우 191호가 개별경영체로 운영되고 작목반 13개소, 조합법인 7개소, 농업회사법인 1개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경영체 유형별 분류 (단위:개소)

개별경영	작목반	조합법인	회사법인 ²⁾
191	13	7	1

(2) 경지보유 규모

(가) 경종부문

전체 조사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9,278평(9.8ha)으로 전국평균 농가 4,380평(1.46ha)보다 6.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영유형체별로 분석해 보면 작목반 47,197평(15.7ha), 법인체 33,181평(11ha), 개인농가 26,356평(8.7ha)순으로 나타났다. 법인 경영체보다 작목반 소유면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법인경영체는 소유자산을 법인명의로 하는데 비해, 작목반은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작목반 형태가 더 농업인에게 친숙한 경영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표 5> 경영체 유형별 경지보유 (단위 : 평)

구 분	논	밭	시 설	과수원	계
전체평균	11,939	6,010	2,199	9,130	29,278
개별경영	9,691	6,204	1,863	8,598	26,356
작 목 반	28,905	2,250	1,917	14,125	47,197
법 인 체	22,028	5,201	5,952	-	33,181

주)법인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축산부문

조사농가중 주 작목 소득을 축산으로 하는 농가는 18호로 전부 개별경영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체 형태로 운영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호당 사육규모는 한우 63두, 돼지 1,370두, 닭 9,175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회사법인 : 합명,합자,유한, 주식회사로 나뉘며 조사대상 법인체중 유한회사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표 6> 사육두수

(단위 : 두, 수)

구 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사육두수	63	30	1,370	9,175

(3) 주요 재배작목

조사농가 212호의 주작목별 사업목적을 분류해 본 결과 과수 51농가로 제일 많았고 특용작물 30호, 식량작물과 과채류가 28호 순으로 분석되었다. 육묘분야는 원예작목 공정육묘 시설을 갖추어 증자를 분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7> 주 작목별 분류

(단위 : 호, 개소)

식 량	채 소	과채류	과 수	화 훼	축 산	가 공	특 용	육 묘	기 타
28	26	28	51	16	18	7	30	4	4

과수분야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목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매실, 참다래 등 특정작목에 편중된 재배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타작목은 농외소득원을 목적으로 주 사업이 관광분야와 다른 주작목 분야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분야를 포함 시켰다. 특용작물 또한 가시오가피, 버섯류 등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새로운 소득대체 작목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영성과 분석

(1) 성과분석 총괄

조사농가 평균 조수입은 216,831천원으로 경영비 121,782천원을 제외한 소득은 95,049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최대 소득을 올린 경영체는 쌀 생산 및 도정사업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매출액 27억원에 연 825,10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최소 소득농가는 논 2,300평으로 벼농사를 운영하는 농가로 매출액 8,925천원, 소득은 6,211천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소득분석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소 득 율
평 균	216,831	121,782	95,049	44%
최 대	2,700,000	2,137,000	825,100	31%
최 소	8,925	2,714	6,211	70%

경영유형체별 소득분석 결과 조수입기준으로 법인경영체 1,153,110천원, 작목반 144,635천원으로 개별경영체나 작목반 보다 조직화된 법인경영체가 6.5배 더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소득 또한 275,97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율 분석에서 작목반 소득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작목반의 특성상 생산은 개별적으로

하고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와 면접조사시 개별농가에서 발생된 경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경영유형체별 소득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개 수	조수입	경영비	소 득	소득율
개별경영	188	178,647	94,731	83,916	47%
작 목 반	11	144,635	29,877	105,195	73%
법 인 체	8	1,153,410	877,436	275,974	24%

- 주) 212경영체중 경영성과가 불분명한 5개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경영유형체별 최상위 농가분석

경영유형체별 조수입 기준 최상위 1농가를 분석한 결과 개별경영체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농가로 조수입 15억 7천만원에 4억 8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작목반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10농가가 모여 표고버섯을 운영하는 농가로 조수입 7억원에 4억 5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법인체는 경기도 여주에서 논면적 50,000평에 쌀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조수입 27억원에 5억 6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경영형태별 최상위 농가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경영규모	조수입	경영비	소 득	소득율
개별경영	양 돈	2,600두	1,578,774	1,170,000	408,774	26%
작 목 반	버 섯	20,000평	700,000	241,000	459,000	66%
법 인 체	쌀	50,000평	2,700,000	2,137,500	562,500	21%

(가) 개별경영

양돈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우 돼지 2,600두와 사슴 11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연령은 40세, 재배경력은 16년, 연평균 10일정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로 연간 557,280kg의 비육돈을 생산하여 2,833원/kg 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특등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초와 황토발효를 토굴발효 시켜 사료에 섞어 투여하여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 유통업체의 인정을 받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작목반

표고버섯 작목반을 운영하는 작목반은 10농가로 결성되어 시설면적 20,000평에 산조 302호, 산림 4호 품종명으로 생산하여 연 175,000kg을 생산하여 4,000원/kg에 도매시장에 80%, 인근 재래시장에 20%를 출하하고 있다. 생산품 품질관리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특품 50%, 상품 20% 수준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고품질 생산을 위해 양질의 표고원목 구입과 조기 종균검증을 실시하고 특히 친환경 무농약 재배방식을 택하여 소비자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법인체

5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YJ 는 논 50,000평과 도정공장을 갖추고 생산과 가공(도정) 유통을 겸용하는 법인체로서, 연 80톤의 쌀 생산과 인근농가에서 재배된 쌀 18억 5천만원 어치의 쌀을 도정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에 전량 판매하여 연 2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고품질 쌀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한 원료만을 매입·가공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확실한 판매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점이 우수요인으로 분석된다.

(3) 연령대별 분석

(가) 인적사항 및 교육일수

개별경영체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인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작목에 대한 재배경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력연수가 높은 것으로 당연한 결론이 도출 되었고 연평균 교육일수는 50대에서 연간 17.7일로 가장 높고, 매일 경영기록을 하는 농가는 3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학력내용은 각 계층의 최빈값으로 학력내용을 표시하였고 연령대별 학력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재배경력 및 연간 교육일수

구 분	농가수	재배경력	교육일수	학력3)	경영기록4)
30대	33호	9.9년	12일	대졸	90%
40대	97	15.1	17.1	고등	73
50대	47	19.2	17.7	중등	70
60대	5	24.6	16.4	중등	80

주)30대 : 20대 2농가 포함

(나) 경지보유면적

연령대별 경지보유 현황 살펴보면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농가 평균으로 샘플수가 타계층에 비해 작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층에서는 논, 밭, 시설, 과수원 비교적 고르게 소유하고 있으나 특히 시설면적은 호당 1,470평을 소유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대층에서는 논면적 비중이 많고, 50대층에서는 밭면적, 60대층에서는 논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력 :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4) 경영기록 : 매일기록하는 농가기준

<표 12> 경지보유면적

(단위 : 평)

구 분	논	밭	시 설	과 수 원	계
30대	3,679	3,206	1,470	1,758	10,113
40대	4,141	1,818	1,201	2,822	9,982
50대	3,388	5,900	858	3,634	13,780
60대	40,588	3,700	1,340	3,212	48,840

(다) 연령대별 소득분석 현황

연령대별 소득분석결과 60대에서 151,04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30대에서 93,900천원으로 가장 높고, 40대 91,423천원, 50대 81,853천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지면적 보유에 따른 작목 포트폴리오상 30대에서 고소득 원예작목 재배에 따른 시설 자본농업 쪽으로 접근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13> 연령대별 소득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조수입	경 영 비	소 득
30대	246,102	152,202	93,900
40대	184,373	92,950	91,423
50대	142,483	60,950	81,853
60대	277,273	126,230	151,043

(4) 학력별 소득분석

(가) 학력계층별 소득분석

학력계층에 따른 소득분석 결과 중·고등학교를 마친 농가에서 각 98,471천원, 97,365천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학이상의 학력에서 77,782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이상의 학력에서는 재배경력이 11.2년으로 짧고, 호당 경지보유 규모 또한 9,987평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력계층별 소득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수	조수입	경영비	소 득
기 타	33	172,286	88,447	83,839
중학교	23	194,891	96,420	98,471
고등학교	78	190,851	93,457	97,365
대학이상	48	178,254	100,472	77,782

주) 기타 : 초등학교, 무학, 무응답 포함

소득이 가장 높은 중등학력에서는 재배경력이 20.3년으로 가장 많고 연간 교육일수도 21.7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과 학력과의 관계보다는 소득과 재배경력, 교육일수, 경지보유 규모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학력계층별 재배경력 및 경지보유 현황

<표 15> 학력계층별 재배경력 및 경지보유 규모

구 분	재배 경력	교육 일수	경 지 보 유				
			논	밭	시 설	과수원	계
기 타	15.6	13.8	8,955	5,412	1,211	1,215	16,793
중 학 교	20.3	21.7	10,135	3,122	592	2,313	16,162
고등학교	17.6	19.1	3,485	3,485	1,534	2,777	10,975
대학이상	11.2	12.5	2,907	2,907	865	3,933	9,987

다. 개별경영체 품목별 분석

(1) 쌀

개별경영체에서 쌀을 주작목 소득으로 경영하는 농가 13호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규모는 호당평균32,333평(10.7ha)으로 전국평균 농가 2,700평(0.9ha)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당평균 조수입 126,134천원에서 경영비 44,040천원을 차감한 소득은 82,094천원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경영규모가 큰 농가는 20만평규모에 368,60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가장 작은 농가는 2,300평 규모에 연 6,211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쌀 경영규모별 소득

(단위 : 천원/13호)

품 목	경영규모(평)	조수입	경영비	소 득	평당소득
평 균	32,333	126,134	44,040	82,094	2,539원
최 대	200,000	720,000	351,400	368,600	1,843원
최 소	2,300	8,925	2,714	6,211	2,700원

주) 최대, 최소 : 면적기준

우수농가간 경지보유 규모차이(최대-최소)는 86.9배, 조수입은 80.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은 59.3배나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평당 소득으로 환산시 최소농가는 2,700원, 최대농가는 1,843원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농가 평당 소득은 2,539원으로 전국평균 2,386원 보다 6%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17> 평당 소득분석 비교

(단위 : 원/평)

품 목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조사농가	3,901	1,362	2,539
전국농가	3,434	1,048	2,386

(2)과채류

과채류 농가분석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작목을 재배하고 있어 품목별 분류가 쉽지 않고 샘플농가도 작아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마토의 평균 재배면적은 1,889평 농가당 평균소득은 67,783천원,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1,366평, 호당 52,899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표 18> 과채류

(단위 : 천원)

품 목	농가수	경영규모(평)	조수입	경영비	소 득	평당소득
토 마 토	9	1,889	130,880	63,097	67,783	35,883원
파프리카	5	1,366	143,764	90,865	52,899	38,725원

평당소득은 토마토는 35,883원, 파프리카 38,725원의 소득으로 일반 관행농가와 비교 시 토마토는 1.5배, 파프리카는 0.8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평당소득 비교

(단위 : 원/평)

구 분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토마토	조사농가	69,285	33,402	35,883
	관행농가	37,946	14,815	23,131
파프리카	조사농가	105,244	66,519	38,725
	관행농가	131,929	86,369	45,560

주)토마토 관행은 반축성, 파프리카 관행은 강원도 소득자료

(3) 과 수

과수농가는 전체 31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배, 단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는 사과 8,155평, 배 7,404평, 단감 21,250평이다. 규모가 가장 큰 농가는 사과 25,000평, 배 11,000평, 단감 60,000평 규모로 분석되었다.

<표 20> 과수 경영규모별 소득

(단위 : 천원)

품목	농가수	경영규모(평)	조수입	경영비	소득	평당소득
사과	17	8,155	141,342	37,661	103,681	12,119원
배	8	7,404	127,173	35,615	91,558	12,366원
단감	6	21,250	217,883	95,666	122,217	5,751원

평당소득은 사과 12,119원, 배 12,366원, 단감 5,751원으로 분석되어 전국관행 농가대비 사과 1.1배, 배 1.4배, 단감 1.1배 높게 나타났다.

<표 21> 평당소득 비교

(단위 : 원)

구 분	사 과	배	단 감
조사농가(A)	12,119	12,366	5,751
관행농가(B)	10,711	8,530	5,251
대 비(A/B)	1.1배	1.4배	1.1배

(4) 버섯

버섯 재배농가 평균 경영규모는 표고버섯이 2,033평으로 가장 많고 새송이 버섯 621평, 느타리 버섯 288평순으로 조사되었다. 호당소득은 평균느타리 버섯 57,577천원, 새송이 123,740천원, 표고 62,68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평당소득으로 환산하면 느타리 199,920원, 새송이 199,259원, 표고 30,833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버섯 농가소득

(단위 : 천원)

품 목	농가수	경영규모(평)	조수입	경 영 비	소 득	평당소득
느타리	6	288	138,543	80,966	57,577	199,920원
새송이	7	621	430,417	306,678	123,740	199,259원
표 고	3	2,033	122,183	59,500	62,683	30,833원

(5) 축 산

비육우 농가의 평균사육 두수는 135두로 호당 89,293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사육두수당 소득은 661,430원, 비육돈의 사육두수는 2,867두 호당 184,141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두당 64,228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축산농가 소득

(단위 : 천원)

품 목	농가수	경영규모(두)	조수입	경영비	소득	두당소득
비 육 우	6	135	211,388	122,096	89,293	661,430원
비 육 돈	3	2,867	922,258	738,117	184,141	64,228원

4. 적 요

본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농촌진흥청 우수농업인 시스템에 등재할 목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농가씩 조사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중 212농가를 선별하여 조사된 농가의 경영주 인적특성과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례분석 결과

(1) 경영주 인적사항

경영주의 성비는 남자 201명, 여자 11명으로 여성농업인 비중은 5% 수준이며, 가구당 평균연령은 47.2세, 최고령자 65세, 최연소자 26세로 분석되었으며 주 작목에 대한 재배경력 은 15.3년, 연간 영농교육 이수 일수는 16.9일로 조사되었다. 경영기록은 매일 기록하는 농가가 68%(145호), 조사농가의 11%(23호)는 아예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작목별 사업목적 분석한 결과 과수 51호, 특용작물 30호, 식량작물과 과채류 28호, 축산 18호, 화훼 16호순으로 분석되었다.

(2) 경지보유 규모

법인이나 작목반을 제외한 개별경영체가 보유한 평균 경지면적은 8.7ha(26,356평)으로 이 중 3.3ha, 밭 2ha, 시설 0.6ha, 과수원 2.8ha로서 이는 전국 평균농가 보다 5.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작목반이 보유한 경지면적은 15.7ha, 법인체는 11.0ha로 조사되었다. 조사 농가중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18호이며 호당 평균 사육규모는 한우 63두, 젖소 30두, 돼지 1,370두, 닭 9,175수로 추정된다.

(3) 경영유형체별 최상위 농가

전체 조사농가 210개소에 대한 소득 분석결과 조수입 216,831천원에 경영비 121,782천원을 제외한 평균소득은 95,049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별경영체의 최대소득 농가는 양돈업을 하는 농가로 조수입 1,578,774천원 경영비 1,170,000천원으로 연 408,774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경영체는 경기 여주에서 쌀 생산과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체로 조수입 2,700,000천원에 경영비 2,137,500천원을 제외한 소득은 562,500천원이며, 작목반은 강원 고성에서 10농가로 구성되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으로 조수입 7억원에 연 4억 5천 9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연령대별 분석

연령계층별 소득분석 결과 60대에서 151,043천원으로 소득이 가장높게 분석되었으나 이는 조사농가 자체가 60대에서 5농가밖에 없어 샘플수가 작고 이들이 보유한 경지면적이 타 연령층의 2.5배이상 넓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별 소득 분석 결과 30대에서 93,900천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았고, 40대에서 91,423천원, 50대 81,853천원순으로 분석되었다.

젊은 계층에서 소득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경지면적 보유에 따른 작목 포트폴리오상 젊은 층에서 리스크가 큰 고소득 시설작목에 집중한 결과로 계층별 시설재배 면적이 30대 1,470평, 40대 1,201평, 50대 858평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5) 학력별 분석

학력계층별 소득분석결과 학력과 농업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영주에서 각 98,471천원, 97,365천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오히려 대학이상의 학력계층에서 77,782천원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이상의 계층에서는 재배면적은 3.3ha로 제일작고, 재배경력도 11.2년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중등학력 계층에서는 재배경력 20.3년으로 가장 많고, 연간 교육일수 일수도 21.7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과 소득과의 관계보다는 재배경력, 교육일수, 경지보유 규모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개별경영체 품목별 분석

쌀을 주 작목소득으로 하는 농가의 호당평균 재배면적은 10.7ha, 소득은 82,09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배면적이 최대규모인 농가는 20만평에서 368,60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최소 규모인 농가는 2,300평 규모에 6,211천원의 소득을 올려 소득격차는 59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채류 중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의 호당평균 경영규모는 각 1,889평, 1,366평으로 나타났고, 호당 평균소득은 토마토 67,783천원, 파프리카 52,899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평당소득으로 환산하면 토마토 35,883원, 파프리카 38,725원으로 일반농가와 비교시 토마토는 1.5배, 파프리카는 0.8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수농가의 평균경영 규모는 사과 8,155평, 배 7,404평, 단감 21,250평으로 나타났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사과 103,681천원, 배 91,558천원, 단감 122,217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평당 소득은 사과 12,119원, 배 12,366원, 단감 5,751원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한우 135두, 돼지 2,867두로 나타났으며, 호당평균 소득은 한우(비육우) 89,293천원, 양돈(비육돈) 184,141천원으로 분석되어 두당 소득으로 환산시 연간 한우 661,430원, 양돈 64,228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우수농업경영체의 개념정의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2,901만원으로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 3,736만원의 78%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농가소득 중 순수하게 농업에서 얻은 소득은 12,050천원으로 농가소득의 4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우수농업 경영체는 최소한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고, 일반농가 보다 2배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로서, 일반농업인이 벤치마킹할 가치와 능력을 보유한 농가로 잠정 정의하였다.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농가는 2004년 기준으로 농가소득 기준6,000만원이상, 조수입 기준으로 연 1억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며, 본 조사농가중 위 요건을 만족하는 개별경영체로 운영되는 188농가 중에서, 조수입 1억이상 농가 109호, 소득 6천만원 이상 98호로 조사농가의 52%가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조사상의 한계와 문제점

본 조사사업의 주목적은 전국에서 우수한 농가를 선발하여 일반 농업인이 벤치마킹할 자료를 제공하여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어졌다. 그 결과 통계처리를 위한 계량적 데이터 수집보다는 서술형 문자자료와 사진자료 수집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 향후 정부 정책 자료 개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 수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는다. 농가의 경영형태는 개인, 작목반,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사사업의 조사표는 동일한 조사표로 조사되어 법인의 경우 출자금, 출자사원, 부채, 자산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5. 인용문헌

- 농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2004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2004
- 농업총조사, 통계청, 2000
- 농가경제, 통계청, 2004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우수농업 경영체의 정의 및 선발기준(시책건의)
- 우수농업 경영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 발전전략(영농활용)
- 우수농업경영체 사례분석(논문게재, 계간 농정연구 2005. 겨울호)